

사업추진배경에 따른 농촌지역정보화 운영전략 : 비교사례 연구

How Promotor Background Works for Management Strategies
of Cyber Rural Communities: A Comparative Case Study

박상혁 * 권진택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사례연구 |
| II. 농촌지역과 지역정보화 |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 |
| 1. 농촌지역정보화 | 2. 지역정보화 마을 특성별 분석 |
| 2. 지역정보화 사업주체 | V. 결론 및 시사점 |
| III. 연구방법 | |
| 1. 연구대상의 선정 | |
| 2. 자료수집방법 | |

Key Words : 농촌 지역정보화, 비교사례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농촌지역정보화 사업의 사례연구를 통해 '민간주도형' 농촌지역정보화 마을과 '정부주도형' 농촌지역정보화 마을간의 다른 추진주체의 운영상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민간주도형'인 경우, 자생력, 커뮤니티,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 등의 측면에서 강점을 보인 반면, '정부주도형'인 경우, 확산속도, 사이트 운영, 하드웨어 보급 등의 측면에서 강점을 나타냈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농촌지역정보화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특히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에게 방향설정을 제시해 줄 것이다.

* 진주산업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교수, spark@jinju.ac.kr, (055) 751-3664

** 진주산업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교수, kwonjt@jinju.ac.kr, (055) 751-3661

I. 서론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기술의 발달은 도시와 지방의 물리적 거리를 단축시키고 이동수요를 대체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사회적 거리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 대도시의 차별적 성장과 경제·사회활동의 집중화는 더욱 가속화 되어 가고 있으며 (Shibusawa, 2000), 이러한 지식 산업화는 산업사회시대에 비해 훨씬 더 빠르게 사회적 양극화와 공간적 격차를 증대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공동체 조차 역설적으로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 대면접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시와 지방간의 정보격차 (digital divide)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지역정보화사업이다 (OECD, 2001). 지역정보화는 국가 차원의 정보화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특정 지역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화를 의미하며,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린 지역 발전에 초점을 맞춘 정보화 사업이다 (유평준 노전표, 2002; 한세익 조찬형, 1997).

농촌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면, 농산물시장 개방압박과 전반적인 경기침체, 그리고 농업경영비 상승 등으로 농업생산 환경은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다. 이러한 추세는 농업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농업 생산요소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아지고, 자원이 외부 관련산업으로부터 생산되어 유입될뿐만 아니라, 생산된 농산물 또한 상업화에 따라 시장출하가 증가됨으로써 농업에 대

한 경영이 한층 중요해 지고 있다 (이시화, 1998). 이와 같은 농업경영의 중요성과 더불어 농촌지역정보화는 농업경영을 혁신할 수 있는 지원수단으로 최근에 한층 부각되고 있다.

농촌지역정보화를 둘러싸고 두 가지 모형이 제기될 수 있다. 하나는 비정부기구, 비영리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민간주도형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도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주도형이다 (한상진·박재홍, 1999). 전자는 지역 주민의 정보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자발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들 정보망은 대체로 지역주민들이 돈, 장비,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후자는 농촌지역정보화의 추진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농촌지역사회의 복지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 때의 농촌지역정보화는 애초에 지역내 정보통신 하드웨어 기반의 제공이 주된 목표였으나, 최근에는 지역내 행정, 산업, 생활 등의 총체적인 정보화 활동으로 이해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농촌지역정보화는 정부주도형이 대부분이다.

농촌지역의 정보화는 진척되면 될수록 하향식 정책수단의 성격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자의 방식은 농촌지역정보화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적 지역주민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국내의 실정에서, 정부의 주도력이 배제된 이러한 방식은 상업적 논리에 지배되어 공공성을 상실할 위험 또한 높다. 이

러한 사업추진 주체의 차이에 따라 실제 농촌 지역정보화를 운영하는데에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상이한 점을 있을 것이라 추측되지만, 이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는 정부나 학계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한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이라는 추진 주체의 차이가 농촌지역정보화 운영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을 유발하는지를 비교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방향설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추진상의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추후의 도입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며, 이에 대한 경영지식의 축적을 위한 학술적 연구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다.

II. 농촌지역과 지역정보화

1. 농촌지역정보화

1) 지역정보화의 개념

지역정보화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행정자치부, 1998).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은 정보화를 통하여 지역의 산업, 행정, 생활, 문화 등 제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대도

시와 지방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며, 지역별로 특성있는 정보화가 추진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방석현, 1989; 유평준 노전표, 2002; 이수성·황주성, 1991; Graham, 2002).

이러한 지역정보화를 바탕으로 추진된 지역 사회 개발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발전을 통해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논리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효과적인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지역 정보화가 유용한 수단이라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손연기, 1998; 한국전산원, 1998).

2) 농촌지역의 정보화 실태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특히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자치단체는 농촌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역정보화에 여러측면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이시화, 1999).

* 지방자치 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계획 및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업의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

* 농촌주민의 낮은 정보화수준: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들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도는 직장인, 상인, 학생 등의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정보화 확산정도가 미약하다.

* 낮은 인구밀도로 인한 넓은 행정지역: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는 도시중심의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넓은 지역을 행정지역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구밀도 또한 낮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을 이용한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앙의 소수 거점만을 가지고 있어 이곳을 기반으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사업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도 그 영향은 미비하다.

- * 낮은 정보화 인프라: 도시지역에 비해 정보화 인프라 확충 정도가 많이 낮아 주민들이 정보 인프라를 보유하지 않고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

2. 지역정보화 사업주체

지역정보화 추진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해야 하는 것은 정보화 기술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 기술은 그 자체가 특정한 발전 방향을 갖고 일정한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고 단지 지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동시에 있고 그 방향은 사람들이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 하는 결정에 달려있다고 보여진다 (한상진·박재홍, 1999). 따라서, 성공적인 지역정보화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로 정보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극소화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지역정보화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경우보다는 정부가 주도하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더욱이 지역정보화 사업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극히 드물고, 행정 주도하에 관료의 타성에 바탕한 사업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아서 지역민들의 필요성과 떨어진 내용이거나 관청의 전시적인 일회적 행사에 그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역민들의 참여에 의한, 지역주민들의 필요성에 의한 정보화가 아니고, 관주도로 이뤄지는 지역정보화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계속 추진되어 왔고 이것은 다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평준 노전표, 2002; 한상진·박재홍, 1999).

기존의 지역정보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 * 지역주민의 참여부족: 지역 정보화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과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지역 정보화 사업에 지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역정보화 센터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나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 * 구식 기술과 교육 내용: 기존 정보화 노력에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정보화 사업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 기술 혁명을 내용이나 장비에서 제대로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장비와 교육 내용의 변화가 요구됨에도 적절한 변화를 제 시간에 해 내지 못하는 것이다.
- *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화

는 지역민의 요구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많은 경우 지역의 정보화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지도 않았고, 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생겨나면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결과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생겨난다.

* 경직된 행정: 지역정보화에서 행정의 문제점은 계속해서 지적된다. 지역정보화의 주체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였기 때문에 이들이 비판받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이 정보화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은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서 정보화 사업을 집행하고, 전시적인 일회성 행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정보화 사업이 추진 확산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부분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주체의 배경에 따른 지역정보화 운영현황에 대해 분석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의 선정

특성이 다른 2개 이상의 사례를 연구의 대상

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상호 비교하는 것은 단일 사례를 분석하는 경우에 비하여 정성적 (qualitative)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데에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Benbasat, Goldstein, and Mead, 1987; Yin, 1984).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의 특성에 따른 전략과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대상으로 배경이 상이한 두 개의 지역 정보화 마을을 선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주도형’으로 추진된 농촌지역정보화 마을로 진주시 이반성면의 사이버 공동체를, ‘정부주도형’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마을 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공동체인 진주시 이반성 사이버타운과 마산시 고현 미더덕마을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표 1 참조).

〈표 1〉 사례 연구대상

	민간주도형	정부주도형
사례대상	진주시 이반성	마산시 고현
	사이버타운	미더덕마을

이들을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두 농촌 지역정보화마을이 모두 특정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가상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기능에만 국한된 형태가 아닌 커뮤니티, 전자상거래, 주민정보화 교육 등 여러가지 측면에 있어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추진배경간의 차이가 아닌 다른 요인들에 대한 연구설계상의 통제(control)

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② 상기의 유사성과 함께 ‘민간주도형’과 ‘정부주도형’이라는 추진 주체의 배경적 특성과 출발한 환경이 앞서 언급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③ 두 정보화마을이 모두 국내의 농촌지역 정보화 마을 중에서는 비교적 운영이 잘 되는 곳으로 알려진 경우로서 실제 운영의 경험이 가장 많이 축적된 사례들이다.

2. 자료수집 방법

두 농촌지역 정보화마을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인터넷과 신문 등을 통해 자료 수집과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지역주민 및 정보화 마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interview)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및 정리는 농촌지역 정보화마을에 대한 다양한 특성을 8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각각의 영역별로 관련자료 및 문헌 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15개의 항목은 기존의 자료로부터 지역정보화의 특성에 관련된 사항들을 가능한 포괄적으로 리스트한 후, 이를 바탕으로 내부 토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항목을 추출하였다. 면담자료는 면담내용을 담은 담화 프로토콜(discourse protocol)을 녹취하여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분석하였다(Ericson and Simon, 1984). 각각의 사업 특성 및 운영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8가지의 분석 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도입동기

② 사업성과

③ 정보화 교육

④ 정부지원

⑤ 정보화마을 운영

⑥ 전자상거래

⑦ 커뮤니티

⑧ 정보 획득 및 오락

IV. 사례연구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

1) 이반성 사이버타운: 민간주도형

이반성 사이버타운은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주민 200여명이 1999년 6월에 조직한 ‘이반성 PC동호회’로 시작을 하였다. 동호회는 ‘초록’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사업을 벌이고 1999년 폐교한 이반성 중학교를 완전히 개조해 ‘푸른 문화의 집’이라는 사회문화교육센터도 오픈을 하였다. 푸른 문화의 집의 컴퓨터 교육장에는 21대를 비롯하여 교육용 프로젝터 등이 갖춰져 있으며 도서관에는 컴퓨터 관련 서적과 어린이 도서 등 3,500여권이 정리되어 있어 마을 도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카페처럼 꾸민 열린 공간 ‘마루’에서는 영화 상영과 함께 서예교실, 천연염색 등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테마상품 사이트인 초록(www.choroc.co.kr)은 농촌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살린 다양한 e-

business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그림 1 참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빈집 및 묘지관리, 경조사 지원 등 고향지킴이 사업과 용역사업, 유희 및 휴양지 개발 컨설팅, 먹거리 생산유통사업, 소득원개발사업, 생활환경 개발사업, 농촌문화 선양사업 등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수익으로 연결되는데 있어서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이반성 사이버타운은 다른 정보화 마을과 달리 주민의 자발적으로 마련을 했고 정부기관의 도움 없이 주민 스스로 정보화의 필요성을 느껴 스스로 교육하고, 컴퓨터 등의 관련 자비를 자생적으로 보급하며 정보화와 관련한 영농조합법인인 초록까지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이반성면을 중심으로 동일 생활권 지역은 진주시 동부 5개면 지역까지 범위를 확장한 상태이며 각 면마다 정보센터를 운영중이다.



〈그림 1〉 초록 (<http://www.choroc.co.kr>)

2) 정보화 시범마을: 정부주도형

농림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정보화마을기획단은 2001년 3월 정보화 시범마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8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2002년 5월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19개 마을과 강원도 1개 마을을 추가 지정하여 총 20개 시범마을을 선정하였다. 그후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한 이후 경기도 지정 3개 마을, 경상북도 지정 2개 마을 추가로 총 25개 마을이 선정되었다.

정보화시범마을 별로 광케이블 포설과 초고속 인터넷 주 장비 설치 등의 인프라 구축과 마을 내 각 가구까지 초고속인터넷(ADSL)을 설치하였다.

각 마을마다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지방행정 정보망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 및 컴퓨터 제공하고, 자유롭게 각종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무인민원발급기도 설치하여 정보화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가구별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마을 전 가구수 대비 PC 보급률 70%를 확보하여, 정보화시범마을을 총 5,665 가구 중 3,847 가구에 컴퓨터를 보급하였다.

정보화마을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한 조직 체계 확립하고 시범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운영위원회, 정보화지도자, 센터 운영요원을 확보 한 후 대국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보화마을의 캐릭터를 공모·선정하여 관심 유도 및 홍보, 간판 등 캐릭터 활용으로 인한 동질성 확보, 홍보물 제작, 농촌 드라마 방송제작, 중앙 또는 지방신문 등 대중매체, 언론 대상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인터넷 환경 하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 개발하고 정보화 시범마을 공통 및 지역 특화 콘텐츠뱅크, 웹 포털 사이트, 전자상거래,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인빌(<http://www.invil.org>) 사이트를 서비스 중에 있다 (그림 2 참조).



〈그림 2〉 인빌 (<http://www.invil.org>)

이 연구에서는 103개의 정보화 시범마을 중 비교적 활발하게 사이트가 운영중인 마산시 고



〈그림 3〉 고현 미더덕마을

현 미더덕마을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고현 미더덕마을은 미더덕이라는 특산품을 기반으로 정보화 시범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3 참조).

2. 지역 정보화 마을 특성별 분석

본 절에서는 농촌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주도형의 이반성 사이버타운과 정부주도형의 정보화 시범마을중 고현 미더덕마을의 운영상 차이점에 대하여 면담 결과와 분석 결과를 항목별로 정리하고자 한다.

1) 도입배경

두 곳의 도입 배경의 공통점은 농촌과 도시의 괴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화를 추진하였다 (표 2 참조).

〈표 2〉 사례 마을의 도입동기 비교

구분	이반성 사이버타운	고현 미더덕마을
도입 배경	· 이반성 PC동호회 모체 · 지역정보화를 바탕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 국민 정보화 운동 · 지역간, 계층간 정보화 격차해소 · 주민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반성 사이버타운의 경우 1999년 6월 시작한 이반성 PC동호회로 시작하여 폐교된 이반성 중학교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푸른 문화의 집을 개관하였으며, 그 뒤로 영농종합법인인

초록을 설립하여 지역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보자는 주민들의 의욕과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고현 미더덕마을의 경우 정부에서 농촌과 어촌같이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을 지역간, 계층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시키고 지역 특산물인 미더덕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주민소득의 창출 및 지역활성화의 목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발전을 이룩하고자 출발하였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고현 미더덕마을의 미더덕처럼 정보화 시범마을 선정시 지역특산품이 있는 지역들을 주로 지정한 반면, 이반성 사이버타운은 주민 자생적으로 출발하였다는 점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사업성과

이반성면 주민들은 이반성 사이버타운이 생긴 이후 의식구조와 가치관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가상 커뮤니티를 통해 공동사안에 대해 토론할 공간을 확보함에 따라, 주민들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농촌 전체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며 정보화에 앞서 간다는 자각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국내외에 있는 여러 친지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인터넷 뱅킹, 물가 정보 물색, 워드 프로세스 작업 등 주민들 간의 편의성과 효율성도 많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2년 스톡홀름 챌린지 대회에서 e-Business부분에서 최우수 모델로 선정된데 이어 2003년 한국정보진흥원이 지정

하는 대한민국 정보문화 대상을 수상하였다. 또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 사례발표대회 우수상과 한국농물협회 경영혁신 사례발표대회 우수상 등을 획득하는 등 국 내외에서 많은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획득했다.

고현 미더덕마을의 경우는 이반성 사이버타운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정보화 마을로 지정된 마을간의 커뮤니티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다른 정보화 마을간의 협력과 커뮤니케이션 유지가 잘 되고 있다.

확산속도를 살펴보면, 이반성 사이버타운의 경우 처음 개인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을 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1999년에 시작을 하여 2003년 정상 궤도에 오르기 까지 만 4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걸린데 반해 고현 미더덕마을의 경우 2002년도에 정보화 시범마을로 선정되어 컴퓨터 보급, 교육, 정보센터 설치 등의 정부 후원으로 단기간에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반성 사이버타운은 비록 시간은 많이 소요되었지만 자생적으로 생성된 구조이기 때문에 스스로 만드는 것에 체질화되어 있으며 그만큼 주민들이 그 시스템에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그런데 고현 미더덕마을의 경우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 졌지만 그만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존적일 수 밖에 없다. 컴퓨터 무료보급과 시스템 전문업체의 홈페이지 개발 등의 부분에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지만 문제발생시 자생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지금까지의 각 정보화마을의 성과 비교를 표

로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표 3> 사례 마을의 성과 비교

구분	이반성 사이버타운	고현 미더덕마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성, 효율성 증대 · 국내외 수상 경력 · 주민들 자부심 증가 · 주민들간 커뮤니티 원할 · 자각의식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성, 효율성 증대 · 정보화 마을간 커뮤니티 원할 · 확산속도 빠름

3) 정보화 교육 및 정부 지원

이반성 사이버타운은 정보통신부에서 특별 예산 8,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정보화 시범마을로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것은 없다. 정보센터의 기본적인 시설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면사무소에 설치하여 지출을 줄이고 나머지 비용들은 회원의 회비로 운영을 하고있다. 향후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현재로서는 정보문화대상으로 받은 상금으로 그 비용들을 충당하고 있다. PC의 경우에는 중고 PC를 받아와 수리해서 주민들에게 임대해주는 등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는 유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반성 PC동호회 회원으로 가입하면 5만원을 지불하고 기본적으로 워드프로세스, 홈페이지 제작 등 기초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 그리고 정보화 및 전반적인 인터넷 시스템에 대한 교

육을 지속시키고 있다.

고현 미더덕마을은 행정자치부에서 3억과 경상남도에서 1억을 지원 받았다. 마을의 운영위원회에서 100가구를 선정하여 개인컴퓨터 무료 보급과 홈페이지 구축, 정보센터의 빔 프로젝트 안에 시설을 갖추는데 이 지원금을 사용하였다. 교육도 이반성 사이버 타운과 달리 무료로 제공을 받았으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의 각 정보화마을의 정부지원 및 교육지원정도를 비교한 것이 <표 4>이다.

<표 4> 사례 마을의 정부지원 및 교육 비교

구분	이반성 사이버타운	고현 미더덕마을
정부지원	8천만	4억
정보화교육	자비	정부지원

4) 정보화마을 운영

이반성 사이버타운의 경우 앞으로 사업계획의 문제점이나 장애사항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적자원을 뽑았으나 사단 법인화 되면서 인력수급이 비교적 용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정부지원금을 이용해서 교육장 PC 20대와 빔 프로젝트 1대 등 주민 정보 이용실을 만들고, 열람용 PC 10대도 마련하였으며 대강당, 도서관, 상설매장 등 부대시설도 갖추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홈페이지 이용과 참여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홈페이지에 회원들에게 제공할 만한 콘텐츠가 충분히 준비되어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현 미더덕마을의 경우에는 마을에 정보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며 정보센터 안에는 정부의 지원금으로 컴퓨터 11대, 레이저프린터, 잉크젯칼라프린터, 스캐너, 디지털카메라, 디지털캠코더, 빔 프로젝터, 전동스크린, 무인민원발급기 등의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그리고 평일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토요일은 9시부터 1시까지 개방을 하며 공휴일과 야간 등 근무시간 외에는 정보화시범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보센터는 주민들의 교육장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개개인의 정보수집, 인터넷 검색 등으로 많은 이용하고 있으며 고현 미더덕마을에는 젊은 층이 많다는 특성으로 인해 주 사용하는 연령층이 학생들이다.

이반성 사이버타운에서는 연암공대의 서버를 빌려쓰고 있으며 일부는 개인 업체의 서버를 빌려쓰고 있으나 속도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특별히 홈페이지의 별도 관리는 하지 않는다. 고현 미더덕 마을은 삼성 SDS에 중앙관리팀이 별도로 있으며 여기서 중앙으로 관리를 하고 서버는 행자부에 되어 있다.

〈표 5〉 사례 마을의 사이트 운영현황 비교

구분	이반성 사이버타운	고현 미더덕마을
운영	푸른 문화의집	삼성 SDS
인력	회원(자체 동호회)	중앙관리팀
서버 관리	연암공대	행자부

지금까지의 각 정보화마을의 사이트 운영현황을 비교한 것이 〈표 5〉이다.

5) 전자상거래

이반성 사이버타운과 고현 미더덕마을의 전자상거래 부문은 두 곳 다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의 관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온라인만을 제공한 전자상거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현 미더덕마을에서는 이반성 사이버타운과 달리 전자상거래 부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나 기대와는 달리 실제 거래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커뮤니티

이반성 사이버타운과 고현 미더덕마을 두 곳 모두 커뮤니티부문에서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반성 사이버타운의 경우 커뮤니티 쪽은 공동체 운동과 연계되어서 품앗이 활동, 묘지 대행관리 등 오프라인의 활동과 온라인의 활동이 연계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연계전략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것이 이반성 사이버타운의 장점이다. 특히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자발적으로 생성된다는 점은 지역정보화 사업에 있어서 좋은 시사점이 되고 있다.

고현 미더덕마을의 경우에도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보화 마을의 인빌 뉴스에 보도가 되면서 다른 정보화 마을들의 협력과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었다. 즉 고현 미더덕마을의 경우 주민간의 의사소통차원에서 주로 사이트를 활용하고 있다.

7) 정보 획득 및 오락

이반성 사이버타운과 고현 미더덕마을 두 곳에 많은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주민들은 각 가정에서도 쉽게 인터넷 검색, banking, 전자신문 등을 통해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 마을 정보센터에서도 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평소 때 주민들의 여가활동들이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게임 등으로 여가를 보내게 되었으며 노인들도 시간날때의 술한잔과 놀음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장기와 바둑 등으로 여가활동이 바뀌게 되었다.

3. 강약점 비교분석

〈표 6〉는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이반성 사이버타운과 고현 미더덕마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점수화하여 중앙을 (0점) 중심으로 높은 점수를 차지할수록 중앙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최대 5점) 점수가 블록으로 쌓여 나타나도록 도표화한 것이다.

〈표 6〉에서 보면 이반성 사이버타운은 정보화마을의 자생력, 정보센터의 활용도, 커뮤니티 등의 부문에서 고현 미더덕마을에 비해 강

세를 보인 반면 확산속도, 정부지원, 사이트 운영 등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한편 전자상거래 영역에 있어서는 두 곳다 부진을 면치 못했다.

〈표 6〉 강약점 비교분석표

구분		이반성					고현					
		사이버타운					미더덕마을					
		5	4	3	2	1	0	1	2	3	4	5
사업성과	주민 호응도											
	편의성											
	활성화											
	확산속도											
	자생력											
정보화교육	정보화 수준											
	교육 지원											
정부지원	정부지원금											
	PC 보급											
정보화마을 운영 전자상거래	정보센터 운영											
	사이트 운영											
	매출											
	거래 빈도											
커뮤니티	주민간 단합											
	정보전달 및 의사소통											
정보획득 및 오락												

(상대적인 비교우위에 의한 평가임)

V. 결론 및 시사점

본 사례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 추진 방향에 대한 제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정보화는 주로 지방정부나 몇몇 관련기관의 주도에 의한 하향적 접근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본 사례연구를 통해 볼 때 한계가 있다. 정보화의 필요성 및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저변에 확대되지 않고서는 지역에서의 정보화가 진정으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부문 및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상향적인 접근 또한 필요하다. 순수히 민간 주도형으로 시작했던 이반성 사이버타운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었던 점을 고려할때는 상향적 접근과 하향적 접근이 결합된 형태의 지역정보화의 추진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실적위주의 확산보다는 준비된 지역을 잘 선정하여 집중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제고: 지역정보화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지역정보화를 지방정부나 어느 한 기관이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면 부담이 너무 크다. 따라서 지역정보화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지역주민 등이 공동으로 재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지역주민의 자발력을 끌어낸다는 점에서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민간주도형인 사이버타운의 경우, 정보화 교육은 타 지역과는 달리 유료로 추진한 점이나 회비를 거두어 운영비로 사용한 점은 향후 지역 정보화 사업에 기금 마련 방침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운영조직에 대한 제고: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정보화 추진 조직기반을 확보하는 일이다. 결국 정책의 결정과 그 집행을 위한 행동은 정보화 추진담당 조직이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진담당 조직은 행정기관 등 일부조직만으로 구성되어서는 추진력이 약하다. 이상적인 것은 이반성 사이버타운과 같이 자발적 주민이 주관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볼 때 전 정보화마을에 이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보화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 단체, 이해관계자 집단 등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조직을 결성하여 정보화 정책을 결정, 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사업추진 배경에 따른 농촌지역정보화에 대해 사례연구를 통해 비교분석하였는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체의 특성에 따른 연구를 다양한 항목으로 나누어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사업추진 주체의 특성에 따른 차이 및 강약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지역정보화 사업의 향후 운영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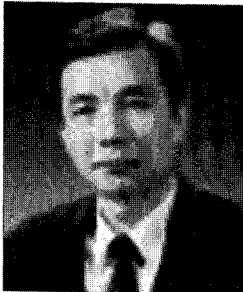
1. 방석현, 행정정보 체계론, 법문사, 1989
2. 손연기, “한국적 지역정보화 정책의 논의와 가능성,” 정보사회와 정보화 정책, 나남, 1998, pp. 287-331.
3. 유평준 노전표, 인터넷 지역정보화의 실태와 전략, 집문당, 2002
4. 이수성 황주성,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종합대책,’ 통신개발 연구원, 1991
5. 이시화, “농촌지역 정보화의 현황 및 전략,” Journal of the Korea Regional Informatization Association, 1998. 12.
6. 이시화, “경남지역정보화의 현실과 문제,” 경남발전지, 1999년도 11월호
7. 한국전산원, “전자상거래 주요 이슈와 국가 대응전략,” 정보화 동향, 110권, 1998
8. 한상진 박재홍, “지역정보화 계획의 흐름과 지역별 특성,” 사회과학연구, 제17집 제2호, 1999, pp. 87-100.
9. 한세억 조찬형, “지역정보화정책 이론과 실제,” 한국정보문화센터, 1997
10. 행정자치부, 시 군 구의 지역정보화 기본 계획수립지침, 1998
11. Benbasat, I., D.K. Goldstein, and M. Mead, “The Case Research Strategy in Studies of Information Systems,” MIS Quartely, 11(3), Sep. 1987, pp. 369-386.
12. Ericsson, A.K. and H.A. Simon, “Protocol Analysis: Verbal Reports as Data, The MIT Press, 1984
13. Graham, S., “Bridging Urban Digital Divides? Urban Polarisation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s), Urban Studies, Vol. 39, No. 1, 2002, pp. 33-56.
14. OECD, “Understanding the Digital Divide,” OECD, 2001
15. Shibusawa, H., “Cyberspace and Physical Space in an Urban Economy,” Papers Reg. Sci., 79, 2000, pp. 253-270.
16. Yin, R.K.,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Applied Social Research Methods Series, 5, Sage Publications, 1984.

저자약력



박상혁 (Sang Hyuk Park)

- 1992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 (경영학사)
- 1994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경영정보학과 졸 (경영학석사)
- 2003년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졸(경영학박사)
- 1993년~ 1998년 LG-CNS 시스템엔지니어
- 2003년~ 현재 국립진주산업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전임강사
- 관심분야 : 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 전략, 지식경영, 디지털 정책
- e-mail : spark@jinju.ac.kr



권진택 (Jin Taek Kwon)

- 1986년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졸 (경제학사)
- 1989년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 (경제학석사)
- 1993년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 (경제학박사)
- 현재 국립진주산업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금융, 중국경제, 전자상거래
- e-mail : kwonjt@jinju.ac.kr